

0. 수기를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평가원 지역 재학생 **초수, 차석**으로 합격한 와카와카와입니다.

1차 +14.00

최종 +14.93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순위 2

특수교육 : 박해인 강사님 (희소샘플러스)

유아교육 : 하수혜 강사님 (박문각)

재학생 초수로 시험을 준비하며, '학교현장실습학기제'를 통해 **한 학기 동안 교생실습**을 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많은 양의 공부를 하지 못했고, 1학기 종강 이후 여름휴가를 여유롭게 다녀오고 약 7월경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도 합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합격에 대한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 수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수기를 읽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페 댓글로 편하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목차

0. 수기를 시작하며
1. 특수교육
2. 유아교육
3. 기타 (유아특수교육, 논술, 장특법 등)
4. 수기를 마치며

1. 특수교육

저는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 샘플을 보고, **박해인 강사님**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느낀 박해인 강사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확한 발성, 발음 등 듣기 편안한 목소리
- 쓰면서 하는 공부를 좋아함 (적합)
- 놓치거나 가볍게 보는 부분 없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함 (적합)

따라서 박해인 강사님의 강의를 **단과**로 결제하였고, **기본이론 / 기출분석 / 유아특수교육학 / 모의고사**를 수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제풀이, 논술, 제가 들었던 유아특수교육학 강의까지 세 가지 모두 '유아특수 선생님들께서 수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면 연간패키지를 들었겠지만, 꼭 필요한 선택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재학생 초수 분들이라면 대학교 **제휴 할인**을 꼭 확인하고 결제하시길 추천합니다.

① 1~3월 기본이론

먼저 제 목표는 **기본이론을 밀리지 않고 수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강의 업로드 일정에 따라 계획을 짜고, 이에 맞추어 공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에 강의가 업로드되면 **당일에 바로 강의를 수강**하고, 월요일~금요일 동안 해당 영역을 정리했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강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색깔 볼펜 또는 형광펜으로 기록하고, 나머지는 모두 **샤프로** 필기했습니다. 강의를 모두 들은 이후에는 기본이론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다시 밑줄**을 치며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박해인 강사님을 수강한다면 '내만서' (도식화)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내만서를 2부 인쇄하여 한 부는 강의를 들으며 받아 적고, **나머지 한 부는 수강한 이후 다시 옮겨 적으며 머릿속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주의 계획을 모두 끝내면 강의 수강 1번과, 정리 1번 **총 2번의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공부법이 저에게 잘 맞았고, 다른 분들도 기초를 탄탄하게 잡기 위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에 걸쳐서 한 영역을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동기 친구와 함께 내만서로 인출 스테디를 진행했습니다. 스테디 일정을 따로 정하지 않고, 중간중간 장난도 치고 밥도 먹으며 **내만서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로 인출**하는 스테디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특수교육학 내용의 반 이상을 암기했다고 생각합니다.

② 3~7월 기출분석

기본이론을 밀리지 않고 수강했다면, 기출 분석 강의 개강 일정에 맞추어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막막하실 수 있지만, **강사님께서 기출의 근거가 되는 개념과, 확장 내용을 모두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기본이론과 같이 받아 적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문제를 먼저 풀고 강의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론 시기 탄탄하게 공부하였다면, 중등의 어려운 문제를 제외하고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푸는 것 자체에 너무 겁을 먹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단권화는 짧은 기간 안에 마쳤습니다. '하루에 한두 영역씩 얼른 끝내 버리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형광 펜을 칠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재밌습니다. 다이어리처럼 책.꾸, 기.꾸 (기본이론서 꾸미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할만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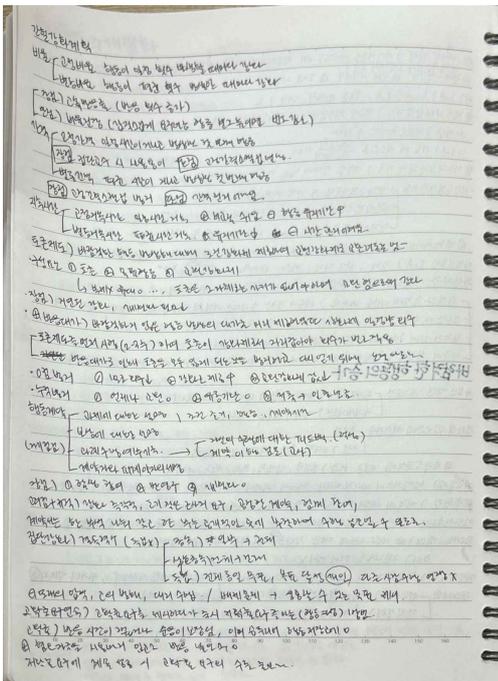
단권화를 끝내니 '이 책을 다 외우라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암기와 인출을 위해 다른 노트나, 구조화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단권화되어 있는 책을 보면서 새로운 인출 자료를 타이핑 하였습니다. 비효율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이렇게 만든 자료를 시험이 끝날 때까지 아주 소중히 여기며 계속 계속 보았습니다. 기본이론서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의사소통장애

의사소통 구성요소 및 언어발달	
의사소통의 요소는? (4)	1) 언어적 요소 : 말, 언어 2) 준언어적 요소 : 억양, 강세, 속도, 일시적인 침묵 등과 같이 말에 첨가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3) 비언어적 요소 : 몸짓, 자세, 표정 등과 같이 말이나 언어에 의존하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4) 초언어적 요소 : 언어 자체를 사고의 대상으로 여겨 언어의 구조나 특징을 인식하는 능력
언어의 구조는?	1) 형태 (음운론, 구문론, 형태론) / 2) 내용 (의미론) / 3) 사용 (화용론)
모음의 중앙화 현상이란?	정각장애 집단의 모음 공간이 더 좁게 나타나 각 모음이 정확한 목표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모음을 'i', 'i'로 산출하는 현상
최소대립쌍이란?	말소리 하나를 교체함으로써 의미의 변별이 생기는 음절이나 단어의 쌍이다.
최소대립쌍의 특징은?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분절음의 수가 같고, 같은 위치에 있는 단 하나의 분절음만이 차이를 보여야 한다.
화용론이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소통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것을 파트너 지향적인 형태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다.
화용론적 기술은? (7)	1) 순서 교대 / 2) 주제 유지 / 3) 피드백 / 4) 자기 수정 / 5) 함축 / 6) 결속표지(가리키기말) / 7) 전체
결속표지의 기능은? (2)	1) 문장 속 낱말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 2)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하여 다 듣지 않아도 되게 해 준다.
전제란?	상대방과 함께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문 시기 특징은? (6)	1) 과잉확대 / 2) 과잉축소 / 3) 과잉일반화 / 4) 주축문법 / 5) 수평적 발달과 수직적 발달 / 6) 전보식 문장
의사소통장애 유형별 이해와 지도	
조음장애란?	조음기관의 결함으로 인해 특정 음에서 일관된 오류를 보인다.
음운장애란?	말소리의 규칙을 습득하고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로 복합음에서 비일관적 오류를 보인다.

④ 9~11월 인출 및 모의고사

하루에 한 영역~세 영역씩 위 자료를 보며 백지에 인출 했습니다. 자료 원편에 어떤 걸 묻는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인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손목이 너무 아파서 쓰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이때는 원편의 질문을 보고 구두로 인출하거나, 타이핑으로 인출 하였습니다.



인출할 땐 검은 볼펜으로 하고, 기본이론서로 빠진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빠진 내용이 있으면 파란색, 빨간색 등 자유롭게 색을 써서 놓친 내용을 보충하였습니다. 또, 틀린 내용이 있을 때는 위에서 소개한 인출 노트에 형광펜을 쳐놓고 암기할 때 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의고사도 박해인 강사님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박해인 강사님 모의고사에 이동건 선생님의 일반 유아 문제도 함께 포함됩니다. 두 강사님의 문제 모두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어렵게 나오는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시험장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의고사 점수가 실제 시험 점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신뢰도가 있다,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모의고사는 유아교육학과 특수교육학 출제 비율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냥 시급하게 채워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용도,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고 시간 안에 풀고,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⑤ 특수교육학 스터디

동기 친구와 진행했던 1~3월 내만서 스터디를 제외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특공 카페에서 만난 선생님과 전화 스터디를 했습니다. 초반에는 하루에 한 영역씩 주2회 스터디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에 3영역 등으로 늘려갔던 것 같습니다.

전화 스터디 선생님께서 저와 다른 강사님을 수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동기 친구가 아니다 보니 쪽팔리지 않게 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날 인출할 내용을 공부해 가다 보니 반강제 암기가 잘 되었습니다. 저는 스터디 선생님과 정말 잘 맞아서 정서적 지지(?)를 하며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전화 인출 스터디는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받고 해당 영역에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폐성장애 영역에서 DSM-5 B의 4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면 줄줄 말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2. 유아교육

유아교육은 하수혜 강사님을 수강하였습니다.

제가 느낀 하쌤 커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양한 예시
- 적중률 좋음
- 정말 정말 짧은 강의 시간 (한 강의 들을 때 20분 정도)
- 책, 자료 매우 깔끔함 ☆☆☆☆☆

하쌤 커리도 단과로 수강하였고,
각론 / 전략노트를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1월으로 돌아간다면 하쌤 커리로 개론, 각론, 기출분석, 전략노트 모두 수강할 것 같습니다. 전략노트로 공부한 덕분에 일반 유아 선생님들과 공통으로 출제되는 문제도 모두 잘 풀 수 있었고, 덕분에 컷 +14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① 1~3월 개론

개론을 공부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독학으로 개론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유아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고생을 했어요. 하쌤 커리를 타실 분들은 꼭 지금부터 개론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다른 강사님도 좋아요!

저는 선배님께 개론 서브노트를 받아서 저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특수교육학과 다르게 진짜 옮겨서 만들기만 하고 암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흐지부지 지나갔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든 다음 선배님께 받은 기출문제집을 한 번 풀긴 했으나... 이 역시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아 머리에 남은 건 없었습니다.

놀이의 특성		
놀이의 기본 특성 9가지	내적 동기	· 유아 내부에서 놀이에 대한 동기가 생겨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한다는 특징
	과정 중시	· 행동의 결과보다 활동 자체에 중점을 두어 놀이 그 자체를 즐기는 특징
	비사실적 행동	· 마치 ~처럼과 같은 가정적 요소, 현실의 왜곡이 나타난다는 특징 ex. 현실에서 벗어나 가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할수록 놀았다고 생각(19주)
	적극적 참여	· 방관자적이거나 산만함을 보이지 않고 열심히 놀이에 참여하게 하는 특징
	자유선택	· 놀이자는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만을 놀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지시한 활동은 일로 인지한다는 특징
	내부에서 부여된 규칙	· 외부에서 부과된 규칙의 구속을 거의 받지 않고, 놀이에 필요한 규칙은 놀이 참여자들이 함께 결정한다는 특징
	공정적 정서	· 즐거움과 기쁨을 주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드러내도록 하는 특징
	유연성	· 다각도로 탐색하고 융통성 있는 사고를 하게 하는 특징
	창의성	· 유아들에게 창의적 사고를 유발하게 하는 특징
허트 놀이와 탐색	탐색	· 탐색 되는 대상의 자극에 의해 유발되어 그 자극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행동 · 물건의 속성 / 놀이보다 먼저 발생 / 낯선 물건 / 물건에 대한 정보 획득 ex. (손전등을 살펴보며) 어떻게 켜지? 어, 여기 스위치가 있네? 왜 안 켜지지? 건전지 넣는 곳은 어디지?(20)
	놀이	· 유�품의 흥미와 요구에 지배되는 유�품의 주도적인 행동 ·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탐색 뒤 / 친숙한 물건 / 자극 유발

당시 만들었던 서브노트 자료입니다. 저는 이렇게 구조화된 자료가 있어야 정보가 머리에 들어오는 편인데, 하쌤의 전략노트가 이것과 비슷하게, 더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하쌤을 들으실 분들이라면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책에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전략노트 인쇄하시면 됩니다!

유크에서 출제된 발달, 놀이, 부모 파트 말고 다른 영역을 버리는 선생님도 있으실 텐데요.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상반기에 버려 놓고 하반기에 불안해져서 봤습니다. 저처럼 불안도가 높으신 선생님들은 그냥 상반기부터 챙겨 가세요! 최종적으로 챙긴 파트는 **발달, 놀이, 부모, 교육과정, 교사론, 평가**입니다.

평가는 꼭!!!! 보세요. 특수교육학 행동지원 파트랑 연결되면서 머리에 지식이 정말 많아집니다. 유크에도 표본 기록법과 사회성측정법이 출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나 유크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유 평가 파트도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3~7월 각론 및 기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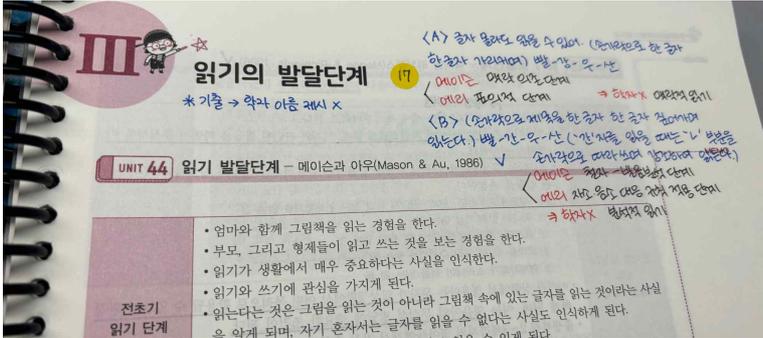
저는 신체운동·건강 파트가 시작할 때쯤 일찍 교생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학 기출분석도 밀리지 않으면서, 일유 각론도 시간 맞춰 듣는 것이 어려웠어요. 사실 주말에 조금 더 노력했다면 밀리지 않고 들을 수 있었을 테지만, 거의 번아웃 상태여서 불가능했습니다.

교생이 끝나고 엄청나게 밀린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불안과, 불합격에 대한 불안은 있었지만 **하쌤의 각론을 듣는 시간 자체는 저에게 힐링이었어요.** 머리에 이것저것 넣어야 하고 복잡하게 생긴 특수보다, 조옮김, 장단, 더하기 전략 같은 걸 배우는 유아가 훨씬 재밌었어요. 하쌤이 예시를 들면서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기도 했고요. 저는 일유 각론 들을 때는 항상 웃으면서 봤습니다.

각론 강의를 수강하고 난 이후에는 특학 기본이론과 비슷하게 줄을 다시 치면서 오늘 어떤 강의를 들었고,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기출 문제집을 풀고, 혼자서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이때까

지는 선배한테 받은 기출 문제집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틀리는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각론 책을 찾아보고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출 분석 방법은 특학 강의 방식 그대로 적용해서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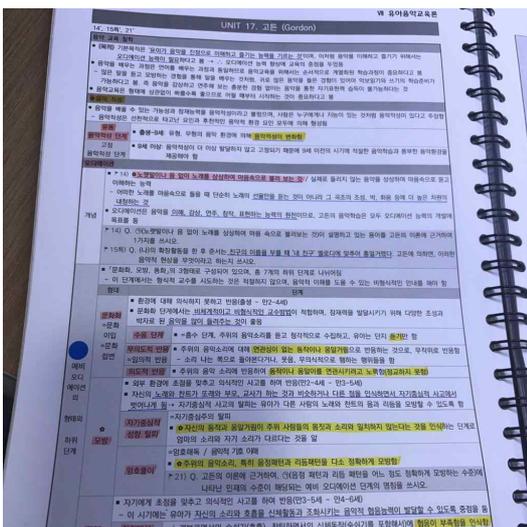
이때 하나의 비효율적인 도전을 했는데요. 유아와 유특에 출제된 개념을 각론 책에 단권화 하겠다는 무모한 도전을 했습니다. 단권화를 끝내긴 했지만 **단권화 한 책을 단.한.번.도. 열.어.보.지.않.았.습.니.다.** 전략노트 들으실 분들은 단권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해당 시기로 돌아간다면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보면서 유아에 나오는 개념을 익히는 시간을 더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략노트 만세라서 다른 게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탄탄히 하면 좋으니까요!!! 저는 **밀린 강의 얼른 듣고 전략노트 인쇄해서 그것만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구요!

③ 7~11월 전략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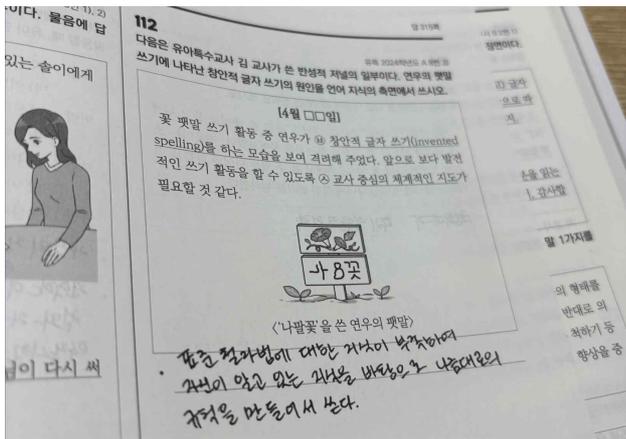
각론 강의를 모두 수강하고, 바로 하쌤의 전략노트를 들었습니다. 전략노트는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강의 수강자한테만 주어지는 파일이에요! 이 시기에 저는 정말 유아교육학 공부가 막막했습니다. 개론은 제대로 안 해 냈지, 각론은 급하게 들었지... 내가 11월까지 이걸 외우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이 드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전략노트를 수강하면서 모든 범위를 암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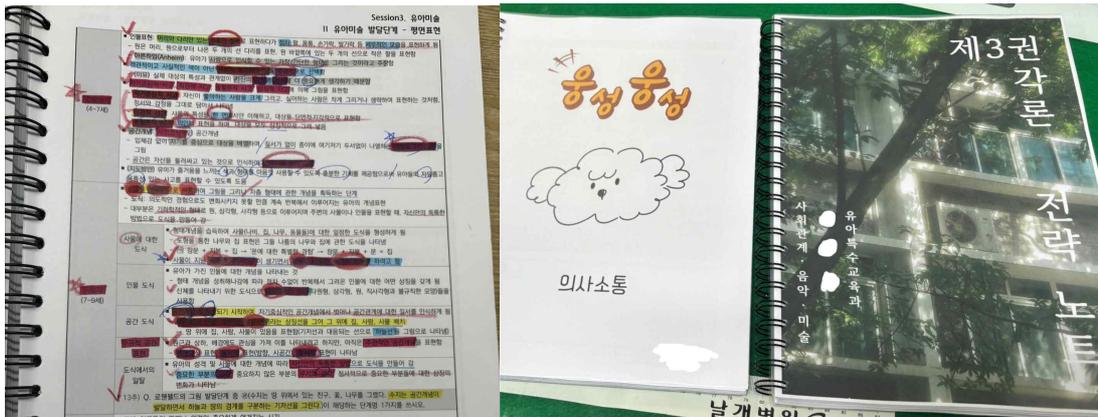
전략노트는 위 사진처럼 대단원, 소단원, 그 안의 개념이 표 형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략노트의 내용 자체도 두꺼운 기본서랑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고,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정말 정말 편했어요. **정의, 특징, 장점, 단점 등으로 잘 분류되어 있어서 정의는 이렇게 써야지, 장점은 이렇게 저렇게 써야지 하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에 최고였습니다. 기출도 함께 나와 있어요!

저는 특학 기본이론과 똑같은 방법으로 강의를 수강하고, 샤프를 친 다음, 혼자 공부하는 시간에 볼펜과 형광펜을 치면서 복습했습니다. 전략노트를 외울 때는 이미 하반기였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촉박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 없이 바로 백지인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아의 많은 범위가 암기하기 힘들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기본동작 파트를 암기하고, 인출하고, 확인한 다음 동작교수법을 외우는 식으로 작은 단위부터 시작한다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한 파트가 '동작교육'처럼 한 범위로 커지고, '오늘은 동작이랑 의사소통 앞부분을 같이 인출해야지' 하는 것처럼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11월 시험 전에 일유 거의 다 외웠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때 기출 문제를 함께 풀면서 문제에 적용하는 것도 꼭 놓치지 마세요. 생각보다 일유는 적용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기출문제집은 '오르다꿈' 회사의 문제집을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만 나와 있는 책과, 문제와 해설 모두 나와 있는 책이 있어 기출분석에 좋습니다. 해설 책에는 문제 - 답 - 해설 순으로 깔끔하게 정렬되어 나와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전략노트를 더럽게(?) 사용하였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내년에 볼 자료도 아닌데 막 쓰자! 하면서 포기했던 것 같아요. 전략노트는 표지를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데요. 저는 소설이나 시집 표지 같은 감성을 내고 싶어서 좀 감성... 표지를 만들어서 사용했고, 친구는 귀여운 캐릭터 표지를 썼어요. 하썸 카페에 가시면 다른 귀여운 표지들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3. 기타

특수, 유아 말고도 **유아특수교육학, 논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누리과정, 올해 시험에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출제되면서 **22 총론까지** 봐야 해요. 좀 많게 느껴지죠? 하지만 하나하나가 큰 과목이 아니고, 특수교육학 한 영역 정도의 범위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 유아특수교육학

저는 박해인 강사님의 유특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급하게 듣느라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는 건지 이해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가 도움이 됐다고 느끼지 못했고, 강사님의 유아특수교육 책을 한 권 구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도 사기 싫다 하시면 서브노트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범위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매번 출제되는 교육과정 수정, 활동중심삽입교수** 등은 꼼꼼하게 보고 가시길 바라요.

상반기부터 볼 필요도 없고,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어 시험 한 달 전에 벼락치기로 바짝 보고 갔습니다.

장애 유아의 사회적 통합	학급 대상 장애 :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집단 활동	유발교수	1) 장애 유아에 대한 아동 근처에 있게 함으로써 기회를 구성 2) 다른 유아의 놀이나 정서성에 관심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기 [19] 3) 사회-의사소통 행동을 보도록 촉진, 유아의 반응 정도에, 시범 보이기 4)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칭찬 제공
		유형활동	- 기존 교육과정 내에서 사용되는 노래나 게임, 활동 등에 친사회적 반응을 이끌어 ex. 친구와 손잡고 놀기, 친구 껴안기, 친구와 학도 만들기, 간지럼 태우기 등의 유아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일어난다면 긍정적인 활동물 교구(153쪽) 장점 - 또래 상호작용 격려, 또래모델 제공 등 유발교수와 공통점 1) 새로운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 학습 2) 학습한 기술 정교화 유발교수와 차이점 - 더 많은 사회-의사소통 사용 기회 제공
	사회적 통합 활동	특징	- 소규모 집단의 유아들을 특정 놀이 활동을 연도록 구성함으로써 또래 관련 사회적 상호작용 증가
		절차	1) 교사가 두세 명의 사회적 및 의사소통 기술이 우수한 또래 선정, 한두 명의 대상 유아들과 함께 교실의 명백한 구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구조화된 사회적 활동을 함 2) 교사는 활동을 계획하고 소개하지만, 놀이에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서 점차 활동에 빠져나감으로써 유아 주도적으로 활동하게 함
		구성요소	1) 또래 상호작용에 문제를 보이는 유아와 사회적으로 반응적인 또래 함께 참여하게 함 2) 약 5~10분 짧은 시간 동안 실시 3) 긍정적인 놀이 경험이나 또래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는 활동 선정 4) 놀이 주제를 소개하고 촉진이나 방해 설정 관련 사항 (가능한 놀이 활동, 사회적 놀이, 규칙있는 게임) 5) 놀이가 시작되면 뒤로 물러서서 놀이 행동과 상호작용 발생 점검, 일정 시간 이상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놀이에 대해 상기시키거나 좀 더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도록 촉진
		교사역할	1) 놀이 주제나 방법, 규칙적으로 소개 2) 상호작용 기회가 많은 놀이 선정 3) 유지와 일반화 고쳐
		사회-의사소통 기술의 직접 교수	- 교사 주도의 교수, 모래-주도의 교수

② 논술

논술 역시 상반기에는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공부인데요. 그 이유는 유아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 개념이 머리에 없다면 논술을 쓰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잡히고 공부하시면 돼요!! 저는 **논술은 책과 강의 모두 구매하지 않고 19점을 받았습니다.** 만점이 아니라 제 방식이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꼭 비싼 돈 들여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써 보고 가시면 됩니다. 정말 물어보는 것 그대로 미사여구 없이 쓰시면 점수 그대로 나와요.

하반기에 논술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한 주에 2번씩 기출문제를 써서 올리는 스터디였고, 다른 분들이 논술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논술 스터디를 한 달 정도 바짝 하고 관두시는 것 추천합니다.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저는 장특법을 상반기에 박해인 강사님의 합격챌린지(일일 퀴즈)를 하면서 잠깐 암기하다가, 중간에 바쁜 시기 일 때는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랬다가 장특법이 출제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하반기에 잠깐 봤습니다. 올해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버리고 가긴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내용이나 선정 및 배치와 같이 중요한 내용은 꼭 암기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통 문장으로 외우지 않아도 시험장 가서 쓸 수 있습니다.

④ 누리과정 & 학교7대안전교육

저는 지난해에 유특에 안전 내용이 엄청나게 출제되어 올해에도 나오면 어찌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론에서도 안전 파트를 수강하였고, 인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봤습니다. **누리과정과**

학교안전교육 내용은 모두 노래로 암기하였습니다. 노래로 암기하면 좋은 점은 **장기기억**이 쉽다는 점입니다. 올해도 누리과정이 출제되었습니다. 꼭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암기하고 가시길 바라요.

4. 수기를 마치며

선생님들! 전하고 싶은 말, 드리고 싶은 팁이 정말 많은데 잘 전해졌을지 모르겠네요. 수기를 시작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저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이 시험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강의가 밀리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암기가 뒤쳐지는 것 같더라도 꼭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시길 바라요. 완주하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정말 사소한 질문이라도 좋으니 댓글이나 쪽지로 남겨 주세요. 시간 날 때마다 확인하고 꼭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사를 꿈꾸시는 선생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